

자질의 대립 위계 변화와 원순모음화 교육*

이 희 두 (원광대)

< 목 차 >

1. 머리말	4. 자질의 대립 위계 변화와 ‘으>오’
2. 선행 연구	5. 맺음말
3. [설축] 대립의 체계와 [원순성] 자질	

국문초록

15세기 당시 국어의 모음체계를 이루는 대립적 자질은 세 가지로서 그 위계는 [coronal]>[high]>[ATR]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labial]은 설축 대립의 체계 아래에서는 잉여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위계에서 최소 대립 자질로 존재하는 [ATR]은 중화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소멸하게 된다. 소위 ‘·’의 1단계 변화나 중립모음 ‘ㅣ’의 발생 등은 이러한 작용 때문이었다.

[ATR]의 소멸 후, [labial]은 잉여 자질에서 대립 자질이 된다. [labial]이 관여하는 새로운 대립 위계는 [coronal]>[high]>[low]>[labial]이어서 전국적으로 공히 ‘->ㅏ’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저모음보다 고모음 위치에서 먼저 [labial]이 대립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 위계를 유지한 중부 방언에서는 원순성 대립의 중화에 의해 저모음 ‘·’를 ‘ㅏ’로 변화시킨

*본 연구는 2015학년도 원광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다. 이에 대해 남부 방언은 저모음에서 [labial]이 대립성을 확립하기 이전에, 위계의 변화를 일으켜 [coronal]>[high]>[labial]>[low]와 같게 된다. 이때 최소 대립 자질로 존재하는 [low]의 중화가 발생하면 당시의 모음체계상 ‘·’는 ‘ㄱ’로 합류하게 된다. 그 결과 남부 및 북부의 일부 방언에서 ‘·’는 ‘ㅏ’로 변하지 않고 ‘폴(蠅) - 포리, 풀(臂) - 풀, 꽃(小豆) - 꽃’처럼 ‘ㄱ’로 변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남부 방언의 ‘·>ㄱ’은 [labial] 대립에 의한 원순모음화가 아닌, [low] 대립의 중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결국 ‘·>ㅏ’의 변화는 원순성 대립의 중화에 의해서, 그리고 ‘·>ㄱ’의 변화는 저설성 대립의 중화에 동기를 둔 원순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자질 대립의 위계, [ATR]대립, [원순성]-기반 3단 모음체계,
원순성 대립의 중화(·>ㅏ), 저설성 대립의 중화(·>ㄱ)

1. 머리말

15세기 이래 순음 아래의 모음 ‘ㅡ’는 ‘ㅏ’로, 그리고 ‘·’는 ‘ㄱ’, ‘ㅏ’로 변하였다. ‘ㅡ>ㅏ’는 국어 전반에 걸쳐 일어난 반면에, ‘·>ㄱ’, ‘·>ㅏ’는 특정한 일부 방언에서만 나타난다. ㅁ술→모실, 마을, 볏쥐→복쥐, 밭쥐, 프리→포리, 과리, 몰다→몰다, 말다(卷), 불가디다→불아지다, 밭아지다, 풀다→폴다, 팔다, 썰다→빨다, 빨다 등.

17세기 말에 일어난 원순모음화 ‘ㅡ>ㅏ’의 변천과 관련시켜 ‘·>ㄱ’도 원순모음화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두 현상은 양순음 아래에서 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발음된다는 점은 같으나, 동일한 현상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ㅡ>ㅏ’ 원순모음화 현상은 방언 전반에 걸쳐 일어난 것임에 반해, ‘·>ㄱ’ 원

순모음화는 특정한 일부 방언에만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ɾ’는 예외가 없는 현상임에 반해, ‘·>ɾ’는 특정 어휘에서만 일어난 현상이므로 전혀 다른 동기에 의해 발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순음 아래에서 ‘·’의 두 가지 반사형 ‘ɾ’와 ‘ɳ’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여러 설명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즉, ‘·’의 2단계 변화 과정과 원순모음화 과정을 인정하고, 통시적으로 이들의 적용 순서를 달리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ɾ’ 규칙이 소규칙이어서 변화가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가 달라 발생한 결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적용의 시간적 순서 및 소규칙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임의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닌다. 더 나아가 순음 아래의 ‘·’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애초부터 ‘ɾ’ 모음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서도 ‘ɾ’와 ‘ɳ’의 관련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당시의 모음체계를 이루는 자질들의 대립과 그 위계성을 고려하여(Dresher 2005, 고성연 2010) 두 방언 반사형 ‘ɾ’와 ‘ɳ’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15세기 당시 국어의 모음체계를 이루는 대립적 자질은 세 가지로서 그 위계는 [coronal]>[high]>[ATR]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labial]은 설측 대립의 체계 아래에서는 잉여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아 제외시켰다. 이러한 위계에서 최소 대립 자질로 존재하는 [ATR]은 중화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사라지게 된다. 소위 ‘·’의 1단계 변화나 중립모음 ‘ɪ’의 발생 등은 이러한 작용 때문이었다.

[ATR]의 소멸 후, [labial]은 신분이 바뀌어져 잉여 자질에서 대립 자질이 된다. [labial]이 관여하는 새로운 대립 위계는 [coronal]>[high]>[low]>[labial]이어서 전국적으로 공히 ‘->ɾ’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저모음보다 고모음 위치에서 먼저 [labial]이 대립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 위계를 유지한 중부 방언에서는 원순성 대립의 중화에 의해 저모음 ‘·’를 ‘ɳ’로 변화시킨다. 이에 대해 남부 방언은 저모음에서 [labial]이 대립성을 확립하기 이전에, 위계의 변화를 일으켜 [coronal]>[high]>[labial]>[low]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최소 대립 자질로 존재하는 [low]의 중화가 발

생하면 당시의 모음체계상 ‘·’는 ‘ㅛ’로 합류하게 된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남부 방언의 ‘· > ㅛ’는 [labial] 대립에 의한 원순모음화가 아닌, [low] 대립의 중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결국 ‘- > ㅛ’는 원순성 대립의 중화에 의해서, 그리고 ‘· > ㅛ’는 저설성 대립의 중화에 동기를 둔 원순화 현상을 알 수 있다.

2. 선행 연구

최전승(2004:146)의 논의를 따르면, 통상적으로 양순 자음 ‘ㅍ, ㅂ, ㅍ’ 서열 다음에 오는 평순모음 ‘으’가 같은 서열의 원순모음 ‘우’로 순행 동화되는 음운론적 과정의 출현은¹⁾ 이러한 현상을 조건 짓고 있는 새로운 모음체계의 출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어 음운사의 연구에서 각별한 관심과 주목을 받아 왔다(김완진 1963; 이기문 1972; 백두현 1992; 한영균 1997; 송민 1998)고 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원순모음화 현상을 모음체계상에서 실현시킬 수 없었던 중세국어와는 달리, 근대국어의 모음체계에서 평순모음 ‘으’와 원순모음 ‘우’가 원순성의 유무를 변별자질로 하는 새로운 대립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한영균 1997:477, 송민 1998:41-43)고 보고 있다.

그러나 17세기 초엽부터 문헌 자료에 등장하는 ‘으>우’라는 원순모음화는²⁾ 우선 이 개신이 적용되는 공식적 규칙의 입력에서 일반성이 결여된 모

- 1) 이와 같은 원순모음화 현상은 대체로 근대국어 초기에서부터 문헌 자료에 산발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여 17세기 말엽에는 거의 일차적인 완성 단계를 나타낸다(전광현 1967; 곽충구 1980).
- 2) 근대국어에 수행된 ‘으>우’ 원순화 현상은 그 지리적 확대 과정에 있어서 18세기와 19세기의 남부와 북부 지역방언에서는 적용되는 음성 환경을 곡용과 활용에 서와 같은 형태소 경계와 이중모음 ‘의>위’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어의 ‘나비(蝶), 거미(蜘蛛)’ 등의 어말모음이 이러한 원순모음화와 무관한 단모음화를 근대국어의 어느 시기에 거친 반면에(나비>나비>나비, 거미>거미), 남부와 북부

습을 노출시킨다(최전승 2004). 즉, 이전 단계에서 ‘으’와 ‘으’는 자연부류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음성 조건에서 ‘으’도 역시 선행하는 양순 자음의 원순성에 의한 동화에 ‘으’와 함께 참여하여야만 원순모음화 규칙의 일반성이 획득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엽의 육진방언에 대한 옛 소련의 Kazan 자료(곽충구 1994)에서나, 18세기 남부방언의 자료인 『염불보권문』(백두현 1992; 김주원 1992), 그리고 현대의 공식적인 전남과 경남 및 함북방언 등과 같은 지역에서 양순 자음에 후행하는 ‘으’가 원순화되어 ‘오’로 동화된 방언형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최전승(2004)은 17세기 이후의 문헌어에 출현하기 시작하는 ‘으’만이 관여하는 원순모음화 현상은 일반적인 규칙이 아닌 것으로 보고서, 이러한 사정은 ‘으’의 비음운화 시기의 설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해석되어 온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모음 ‘으’와 ‘으’에 적용될 수 있는 원순모음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이전에 중앙어 지역에서는 이 음운규칙의 입력의 대상 가운데 ‘으’가 비음운화되어 ‘아’로 합류되어 버렸다는 관점이다(김완진 1975:3, 백두현 1992:233). 근대국어의 계기적인 시간 차원에서 ‘으’의 비음운화 규칙이 먼저 일어나 원순모음화 규칙에 부분적인 출혈(bleeding) 상태를 초래한 것이다. 그 반면 양순자음 다음 위치에서 ‘으’와 더불어 ‘으>오’의 원순모음화를 수행한 지역 방언에서는 ‘으>아’의 개신파에 아직 휩쓸리지 않고 ‘으’가 음소로서 해당 모음체계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부류 ‘으’와 ‘으’를 입력으로 하는 일반화된 원순모음화 규칙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적어도 중부방언에서 일어난 ‘으’의 비음운화 시기를 근대국어 초기의 ‘으>우’ 원순모음화 현상이 확산되기 이전인 17세기로 계기적으로 설정하여야 된다(백두현 1992; 송민 1998: 43).

지역방언들은 ‘나뵤>나뵤, 거뵤>거뵤’와 같은 원순화를 거쳐서 오늘날의 방언형 ‘나부’와 ‘거무’로 사용되고 있음을 18세기의 대표적인 방언자료 『염불보권문』의 다양한 판본들(1704년의 예천 용문사본과 1765년의 흥률사본 등)과 19세기 후반의 전라방언의 여러 자료들이 증언하고 있다(최전승 2004).

둘째는 ‘으>아’의 제2단계 변화의 완결 시기를 18세기 중엽으로 설정하려는 입장에서 근대국어에 나타난 양순자음에 의한 원순모음화 규칙은 먼저 일반성이 떨어지는 음운규칙으로 출발하였을 것으로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으’의 원순모음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을 단계에서도 근대국어의 초기 모음체계에서 ‘으’ 모음 음소는 존재하였다는 가정을 한다(이기문 1977: 193; 광충구 1994: 270). 그리하여 이 규칙은 ‘으’의 원순모음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확대되다가, 규칙이 일반화되어 18세기에 ‘으’로 파악될 즈음에는 ‘으’의 비음운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된 것이다.

이기문(1977: 193)은 이러한 추정과 관련하여 아직도 어두음절 위치에서 ‘으’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 제주방언에서 양순음 뒤에서 ‘으’의 원순화는 여타의 다른 방언들과 동일하게 수행되었으나 ‘으’의 원순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근대국어 초엽의 서울말에 ‘으’가 모음체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실현된 원순모음화 규칙이 ‘으’에만 적용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근대국어에서 일어난 ‘으’의 원순모음화 또는 ‘으’의 원순모음화와 관련하여 음운사의 관점에서 위에서 제기된 어느 쪽의 가설도 이론상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최전승 2004). 그러나 제기되는 문제는 이 두 가지 가설 중 어느 쪽이 언어 사실에 일치하는지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전승(2004: 183)은 근대국어에 일어난 일련의 원순모음화와 그 앞선 시기인 후기 중세국어에서의 원순모음화 현상을 동질적으로 이해하며, 원순모음화 규칙의 장기간의 발달이 보이는 과정으로 파악한다.³⁾ 다시 말해서 ‘으>오’를 포함한 원순모음화 현상은 전기 중세국어의 단계부터 시작

3) 최전승(2004: 167)에서 원순모음화 규칙은, 국어사의 발달 과정에 출현하는 모든 다른 음운규칙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출발의 초기에 이른바 “미약한” 소규칙(minor rule)으로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어휘 확산의 초기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과정에서 일부 어휘들에게만 적용되어 나타나는 이 소규칙은 수의 적 음성 변이 또는 표면적 음성 동화와 같은 양상을 띠는 것이지만, 당대의 모음체계에서의 ‘으’와 ‘우’가 원순성의 유무에 따른 대립(비록 그러한 대립이 완벽하게 완료된 상태는 아니더라도)을 반드시 전제로 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되어 매우 느리게 개별적인 해당 어휘들로 확산되었으며, 후기 중세국어를 거쳐 점진적으로 그 적용 영역을 확장시켜 오면서 근대국어에 들어와 그 발달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매우 긴 과정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동화 현상은 시간상으로 12세기 계림유사 이후에서 18세기 중엽에 걸치는 규칙의 내적 발달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⁴⁾

이와 같이 ‘으>오’의 원순모음화 현상이 전기 중세국어의 단계에서부터 발달되어 해당 조건을 갖추고 있는 어형들로 점진적인 어휘 확산을 시작하여 발달한 긴 여정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가정하더라도 왜 이 현상이 다른 역사적 단계가 아닌 특정 시기에 남부방언에서 대량으로 출현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소위 음성변화의 격발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겨 놓았다.

3. [설축] 대립의 체계와 [원순성] 자질

중세국어의 설축 대립 체계에서 원순성([labial]) 자질은 잉여자질로서 기능한다(박종희 2000)고 한다. Halle & Stevens(1969)에 따르면, 원순성과 설근 전진성이 한 언어 내에서 모두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희귀하다고 한다. 원순성과 설근 퇴행성이 동일한 자질은 아니지만 이들의 조음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음향적인 결과, 즉 최소한 제1 포

4) 최전승(1999: 124)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원순모음화 현상은 그 출발에 있어 조건을 갖추고 있는 모든 해당 단어에 동시에 적용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변화에 먼저 또는 나중에 적용되는 순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개별 어휘적 특수성(어휘적 또는 인지적 의미 또는 빈도수, 음성 환경의 위계 등과 같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본다. ②이 현상은 국어사의 모든 단계의 상이한 모음체계에서 동일한 음운론적 신분으로 출현하였던 음운변화이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중세국어의 원순모음화 현상의 단편적인 예들과 근대국어의 그것들과는 서로 구분되지 않고 성격이 동일한 것이다. ③원순모음화라는 음운변화는 그 출발이 전기 중세국어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어휘 하나씩 파급되어 중세국어의 단계를 거쳐 근대국어 중엽에 이르러 전 어휘부로 확산되고 그 적용 환경이 일반화된, 그 자체 장기간의 내적 시간의 차원을 보유한 과정이다.

먼트에서 유사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음향적인 효과가 유사하기 때문에 [ATR] 대립 체계에서 [labial]은 논리 잉여적인 자질이 된다.⁵⁾

또한 자신들의 모국어에 인두음화된 자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화자들은 예를 들면, 우즈벡(Uzbeks)과 반투(Bantus)인들은 아랍어의 인두음화된 자음에 대응시키기 위해 그들의 순음화된 조음을 사용하여 대체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원순성(lip rounding)과 인두화음(pharyngealization)의 인지적 유사성을 설명해 준다. 다시 말해서 인두가 협착을 이루면, [flattening]([labial])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과정이 한 언어 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의 대립 즉, flat vs. plain의 두 변이체로 다루어진다(Jakobson, Fant and Halle 1951).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중세국어의 [ATR] 대립 체계에서 [원순성] 자질은 잉여자질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Yi어에서 혀가 퇴행하고 인두 협착을 갖는 긴장(tense)모음은 음절 내부에서 특이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음성적 차원에서 볼 때, 긴장 모음 대 이완 모음의 대립은 [pʷo:] 대 [pʷo:]로 전사된다. 모음 특징의 차이 및 인두의 형상을 결정하는 후두 협착의 정도 이외에도 인두협착성을 갖는 긴장 모음의 환경에서는 순음성이 강화되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두협착성은 원순성과 음성적 유사성을 보여 준다(Esling 2005: 34).

잉여자질로서 기능하는 [labial]은 이표기의 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축] 대립을 이루는 ‘·/ㄴ, ㄴ/ㄷ, ㄷ/ㅌ’의 이표기와 달리 [labial]의 음성적 대립을 이루는 ‘·/ㄴ, ㄴ/ㄷ’의 이표기는 일정한 환경에서만 나타난다. 후자의 이표기는 바뀌는 음절을 전후해서 ‘ㄴ’나 ‘ㄷ’ 또는 순음성 자음이 존재하는 일정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일정한 방향을 취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나타나므로 음운변화로 볼 수 없고 단지 음성적 차원의 동화를 보이는데

5) [원순성] 자질은 15세기 국어의 설축 모음체계에서 잉여자질의 신분을 가져 유무 대립을 이루지 못하므로 수의적 음성변이 또는 표면적 음성 동화만을 실현시킨다. 그러므로 중세국어의 원순모음화와 근대국어의 그것은 ‘ㅇ’의 소실로 인해 각 시기의 모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음운론적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자질의 대립 위계 이론(Dresher 2009)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labial] 자질이 잉여자질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15세기 정음 문헌에 나타나는 모음 이표기의 유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오광근 1993)고 한다. 하나는 ‘·/ㅡ, ㅏ/ㅑ, ㅓ/ㅕ’의 이표기이고 다른 하나는 ‘·/ㅓ, ㅡ/ㅕ’의 이표기이다. 이들 예는 다음과 같다.

(1) ‘·/ㅡ’의 이표기

우르늑니<두언 초 九2> ~ 우르고<월석 七35>
므르똥하니<금삼 二72> ~ 므르디<석상 十三4>
부르실씨<월석 十四67> ~ 부를씨라<월석 序7>

(2) ‘ㅏ/ㅑ’의 이표기

구지람<능엄 九103> ~ 구지럼<석상 十九30>
아비<월석 十七21> ~ 어비<용가 52>
언맛<월석 十七44> ~ 언메잇가<월석 八81>

(3) ‘ㅓ/ㅕ’의 이표기

닛피움<구간 六23> ~ 닛피유메<구방 上65>
일호문<석상 十三29> ~ 일후문<석상 十三29>
비룩<두언 초 十七7> ~ 비룩<두언 초 十七4>

이들 이표기는 어떤 음운론적 환경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정하게 국한된 모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이표기가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밀접한 관계를 지닌 모음쌍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이표기된 모음쌍들은 양면대립을 이루면서 자연부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표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표기된 모음쌍들은 설축([인두협착])자질의 유무에 의하여 양면대립을 이루면서 모음조화에 참여하게 된다. 설축 자질은 조화를 이루는 모음의 짝들을 변별시켜 주므로 설축의 유무에 의해 짝을 이룬 모음들의 이표기는 모음조화의 비규칙성을 표출하게 된다. 설축 대립 체계에서 [labial]은 부차적인 잉여성 자질로서 존재함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다음은 [labial]의 잉여성을 반영하고 있는 ‘·/ㅓ’와 ‘ㅡ/ㅕ’의 이표기 예들이다.

(4) ‘·/ㄱ’의 이표기

외롭고<석상 六5> ~ 외롭고<두언 초 卅二53>
쁘로<석상 六7> ~ 쁘로<원각 序2>
도치<두언 초 七26> ~ 도최<능엄 八85>

(5) ‘-/ㄷ’의 이표기

누의<두언 초 八28> ~ 누위<두언 초 卅三46>
수우리<두언 초 八27> ~ 수울<두언 초 八28>
주우려<석상 九9> ~ 주우린<두언 초 卅24>

‘·/ㄱ’와 ‘-/ㄷ’의 이표기는 바뀌는 음절을 전후해서 ‘ㄱ’나 ‘ㄷ’ 또는 순음성 자음이 존재하는 일정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ㄱ’가 ‘ㄱ/ㄷ’로 표기된 것을 원순모음화라는 음운변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게 한다. ‘·/ㄱ’가 각각 ‘ㄱ/ㄷ’로 일정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음운변화로 볼 수 없고 단지 음성적 차원의 동화에 의해 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ㄱ’와 ‘ㄱ/ㄷ’의 관계는 비별변적인 잉여적 차원에 머무르기 때문에 음성변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박종희 2000).

이러한 잉여적 자질 명세에는 체계 잉여적(system redundant)인 것과 논리 잉여적(logically redundant)인 것이 있다(Dresher 2009: 18). 논리 잉여적인 자질 명세는 다른 자질 명세로부터 예측이 가능한 것, 즉 [+nasal]이면 [+sonorant]를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중세국어의 설근 대립 체계에서 원순성은 논리 잉여적인 관계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ATR]과 [+round]는 음향적으로 유사해서 설근 대립이 주축을 이루는 체계에서 [원순성]은 인지적인 면에서 논리 잉여성을 띠기 때문이다.

또한 조음적으로나 음향적으로 다른 소리라 할지라도, 그러한 차이점이 아무 언어에서도 대립적으로 쓰이지 않을 때, 즉 어사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러한 비변별적인 음성자질은 어음 기술에서 제외해도 된다.

전통적인 조음음성학의 모음도에서는 중설(central)모음과 후설(back)모음

을 구별한다. 그런데 중설모음은 비원순 모음임에 비하여 후설모음은 원순모음이라는 잉여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원순후설모음(예: [u, o])과 비원순후설모음(예: [ʉ, y])을 변별적으로 쓰는 언어가 없으며, 또 비원순 중설모음(예: [i])과 원순 중설모음(예: [ʉ])을 변별적으로 쓰는 언어도 없다. 그러니까 중설과 후설의 구별은 원순성의 유무로 할 수 있으므로, 중설·후설의 대립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변별적이 아닌 음성자질은 음성기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별적인 역할을 하는 음성자질만으로 음성기술을 하자는 데서 변별적 자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김진우 2009: 85).⁶⁾ 그러므로 15세기의 ‘ㄱ/ㄷ’은 원순후설모음 [u, o]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비변별적인 원순중설모음 [ʉ, y]와 유사한 모음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근거로 중세국어의 모음체계를 이루는 대립 자질들의 위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이 위계에서 [labial] 자질은 비변별적이므로 제외된다.

(6) [coronal]>[high]>[ATR]

이러한 대립 위계를 갖는 체계에서 나타난 원순모음화 현상에 대해 이를 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로 보지 않고 ‘수의적 음성변이’나 ‘표면적 음성동화’의 결과로 본 송민(1994/1998: 41)의 견해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 당시 [원순성]

6) 조음음성학에선 어느 자음 분류표를 보더라도 양순음(bilabial)과 순치음(labiodental)의 조음위치를 구별한다. 그러나 이 두 조음위치와 조음방식에는 절대적인 잉여관계가 있다. 즉 양순음은 언제나 파열음이며 순치음은 언제나 마찰음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양순파열음과 순치파열음을 구별하는 언어는 없으며, 양순마찰음과 순치마찰음을 변별적으로 쓰는 언어도 없다. 그렇다면 구태여 양순 조음위치와 순치 조음위치를 구별할 필요가 있겠는가? 순치음으로 말하더라도 아랫입술을 윗니에 대고 내는 소리가 순치음인데, 또 윗입술을 아랫니에 대고 내는 소리도 순치음이다. 그런데 이 조음의 차이는 왜 구별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 순치음이 어느 언어에서도 변별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를 양순·순치의 차이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김진우 2009: 85)

자질은 변별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민(1994/1998: 41)의 견해를 아래에 인용한다.

이때의 원순모음화는 '규칙'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수의적 음성변이'나 '표면적 음성동화'의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때까지는 一와 ㄱ가 모음체계상 아직 대립의 짝 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후대의 원순모음화는 순행동화 현상임에 반하여 '님금→님굼'에 나타나는 ㄱ→ㄱ는 역행동화여서 이들까지를 모두 원순모음화에 포함시키기에는 난점이 따른다.

우선 순행동화로서의 원순모음화는 순음하의 모든 一를 ㄱ로 바꾸어 놓았으나 역행동화로서의 원순모음화는 순음 앞의 一를 산발적으로만 ㄱ로 변화시켰을 뿐 일반성이 매우 미약하였다. 더구나 그러한 예외적, 산발적 원순모음화도 사적으로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안정성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역행동화로서의 원순모음화를 '규칙'으로 보기에겐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숨→말숨'에 나타나는 역행동화 ㄱ→ㄱ와 같은 원순모음화도 규칙에 의한 변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수의적 변이로 해석하였다. 그때까지는 ㄱ와 一가 중화적 대립의 짝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ㄱ와 一는 체계상 중화관계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이다.⁷⁾ 이로써 '말숨'이 일시적으로 '말숨'으로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그대로 굳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사숨>사숨, 가숨>가숨'과 함께 '말쌈'으로 굳어진 이유로 이해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말숨→말숨'과 같은 사례는 공시적, 수의적 음성동화로서 산발적인 변이에 속할 뿐, 모음체계상의 대립관계에 기반을 둔 통시적 변화가 아니라고 본 것은 타당한 분석으로 보인다.

7) 원순모음화는 17세기 초엽부터 그 모습이 하나 둘씩 산발적으로 문헌에 나타나다가(전광현 1967:85, 남광우 1974:33-34, 백두현 1988:195 이하) 18세기 말엽에는 그 실례가 거의 모든 문헌에 다량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모음체계의 변화에 연결시켜 그 원인을 유기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명한 것이 김완진(1963)이었다. 중세국어는 모음체계상 ㄱ와 一, ㄱ와 ㄱ, ㄱ와 ㄱ가 각기 중화적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체계 하에서는 적어도 一의 원순모음화가 일어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一와 ㄱ는 중화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송민 1994/1998: 41).

여기에서 구강 내의 혀의 고저, 전후 위치에 의해 모음을 분류하지 않고 혀의 전설성(front), 상승성(raising), 퇴행성(retracting)에 의해 모음을 분류하는 Esling(2005: 41)의 후두 조음자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전설모음 및 전설 개모음들은 혀와 턱의 전진적 행동과 1차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상승모음은 뒤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들어 올려지는 혀의 행동과 1차적으로 관련된다. 또한 퇴행 모음은 후두의 열림, 후두의 높이, 혀의 하강, 혀와 경구개의 동시적인 하강 및 턱의 열림을 조절하는 복잡한 후두 협착자 기제의 행동과 1차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후두 조음자 모델은 먼저 후두/인두 조음자의 협착 대 비협착을 기술한 다음, 구강 내의 네 가지 차원 즉 전진, 후진, 상승, 열림 현상을 이에 관련시킨다. 인두 협착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혀가 퇴행한다. 그리고 후두는 인두 영역으로 약간 상승하여 공명강의 크기가 감소한다. 혀가 후행하는 협착 모음들은 그에 대응하는 비협착 모음에 대해서 모음 영역의 더 낮은 오른쪽 구석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의 전설성, 상승성, 퇴행성은 이 글에서 제시한 [+coronall], [+high], [-ATR]과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음의 성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구강 소릿길의 혀의 위치와 후두 소릿길(인두 포함)의 후두 협착자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Esling(2005)이 제시한 모델에서는 소릿길이 두 개의 공명강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구강이고 다른 하나는 후두강이다. 후두 부분에서는 혀의 움직임은 없지만 혀의 이동의 세 가지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인 퇴행(retraction)을 이루며, 다른 두 혀의 이동은 구강에서 이루어지는 상승(raising)과 전설화(fronting)를 이룬다. 이들 세 부분은 상호 작용을 이루지만 결과적으로 변별적인 세 가지 모음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때 혀의 퇴행 부분은 전통적인 모음사각도의 아래-오른쪽 영역에 위치하는 모음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종전의 혀의 조음자 모델과 달리 Esling(2005)의 후두 조음자 모델에서 기류는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성문을 통해서 인두를 통과한다. 이때 인두는 피열 후두개(aryepiglottic) 협착자 기제의 능동적 조음에 의해 조절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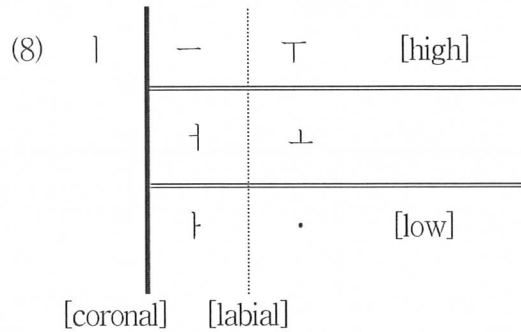
다. 이 피열 후두개 협착자는 성문 통로의 폐쇄와 후두 자체의 상승 및 혀몸의 퇴행과 협력하여 인두강 크기의 변화에 작용한다. 여기에서 혀몸은 인두 조음의 1차적인 조음자가 되지 못한다. 1차적인 조음자의 역할은 후두 기제(mechanism)가 담당한다. 그리하여 피열 후두개 주름은 능동적인 조음자로서 수동적 조음자인 후두개를 향해 협착을 실행한다. 이때 이루어지는 협착은 이 글의 [-ATR]에 대응된다.

[coronal]과 높이 자질 [high]의 위계가 높은 이유는 고성연(2010)에 자세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위계에서 중세국어의 [설축] 자질을 [ATR]이 아닌 [RTR]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언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듯하다. 이 둘을 서로 다른 별개의 자질로 취급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패턴을 보이는 언어도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혀뿌리 자질인데, Esling(2005)에 의하면 인두 협착의 능동적인 조음자는 피열 후두개 주름(aryepiglottic folds)이므로 이때의 설근퇴행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능동적인 조음 동작을 자질로 설정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라면 설근퇴행은 후두 협착자로 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RTR]보다는 [후두협착성]으로 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이 대립 자질 위계에서 [ATR]은 최소 대립 위계를 유지하므로 대립성이 약하여 중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며, 또한 대립성을 상실하기 쉽다. 그리하여 국어 음운사에서 설축 대립이 붕괴되어 ‘·’의 1단계 변화로 알려진 ‘· > ㅡ’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때 [-ATR]은 [low] 자질과의 공기를 선호하므로 대립 위계에서 소멸해 갈 때 [-ATR]은 [low]로 대체된다. 이 [low] 자질의 등장으로 인하여 2단 높이의 [ATR] 대립 체계에서 3단 높이의 전후고저 대립 체계로 바뀌게 된다. 또 다른 한편, [ATR] 때문에 잉여자질의 신분에 머물렀던 [labial] 자질이 이제는 대립 위계에 관여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겪은 단계에서의 새로운 자질 대립 위계는 다음과 같다.

(7) [coronal] > [high] > [low] > [labial]

‘·’의 1단계 변화를 경험한 후의 모음체계는 [ATR]이 소멸한 (7)의 대립 위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이제 [labial]이 대립 자질로서 기능하므로 [high] 부류의 ‘—’와 ‘ㅓ’는 새로운 대립쌍을 이루게 된다. 이 대립쌍(점선 표시)은 대체로 17C 말에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소위 ‘—>ㅓ’의 원순모음화가 발생한다 (박종희 2000).

- (9) 무르다(弱) > 무르다, 무엇 > 무엇
 무지게 > 무지게, 물(水) > 물
 부르다(飽) > 부르다, 브리다(使) > 부리다
 푸르다(靑) > 푸르다, 풀(草) > 풀
 풀(糊) > 풀, 풀다(解) > 풀다

이 순행 원순모음화는 17C 초기부터 그 모습이 하나 둘씩 산발적으로 나타나다가 17C 말기에는 그 실례가 거의 모든 문헌에 다량으로 나타난다.⁸⁾ 18C 초기에 이르면 순자음 아래의 ‘—’가 거의 대부분 ‘ㅓ’로 바뀌어져 이 원순모음화가 더 확산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 시기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ㅓ’가 후설 고모음으로 확립되어 ‘— : ㅓ’가 [labial]에 의한 고모음의 대립쌍을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모음 서열에서의 ‘ㅑ’와 ‘ㅕ’는 [labial] 대립이 아직 확립되지 못

8) 인용 및 구체적인 많은 예는 남광우(1973) 참조.

하고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ㄱ’와 ‘·’는 원순성이 미약하여 ‘->ㅌ’처럼 원순모음화 하지 못하고 주변음의 조음적 영향에 지배되어 비원순모음화한 것으로 보인다. 치음이 후속하는 환경에서 순음 아래의 ‘ㄱ>ㄱ’ 비원순화가 잘 나타나는데(이병근 1970), 이는 치음의 전방성 자질에 이끌려 ‘ㄱ’로 전설화한 것을 나타낸다. 중모음 서열에서 체계적으로는 [labial] 대립을 이루지만 원순성이 미약한 관계로 순자음과 ‘ㄱ’와의 연결에서 ‘ㄱ’의 [labial]은 변별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결국 ‘ㄱ’로 중화되고 만다. 이러한 ‘ㄱ’의 비원순음화는 18C 후엽에서 비롯되어 19C 중엽에 확실해지고, 다시 현대 경기지역어에서와 같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고모음에서의 원순모음화에 대하여 중모음에서의 비원순모음화는 상반된 변화 방향을 가지게 되었다(이병근 1970).

이러한 설명은 ‘·’의 2단계 변화로 알려진 ‘·>ㅌ’의 변화에도 평행적으로 적용된다. ‘·>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위 모음체계에서 ‘·’의 원순성 대립의 중화로 설명할 수 있다. [labial] 자질이 대립 위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ㄱ’의 비원순화와 마찬가지로 ‘·’도 ‘ㅌ’로 비원순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ATR]이 대립 위계를 이루고 있었던 이전 시기에는 비어두 음절에서 먼저 중화가 일어나 ‘·’가 ‘-’로 변했으나, [ATR]이 소멸하고 난 이후의 시기에는 대립 위계에 새로이 등장한 [labial]로 인해 이제는 마지막 단계까지 존속했던 어두 위치의 ‘·’는 ‘ㅌ’로 변하게 된 것이다.

4. 자질 대립의 위계 변화와 ‘·>ㄱ’

자질 차원의 대립이란 대부분의 음운 이론에서 어느 자질이 대립적이고 어느 자질이 잉여적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Dresher(2008, 2009)에 의하면, 어떤 자질 명세가 대립적인지 혹은 잉여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구조주의 음운론자들이 두 가지 양립불가능한 접근법을 함께 사용해 왔다고 한다. 그 하나는 짝짓기 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한 대립 명세이고, 다

른 하나는 자질 위계(feature hierarchy)에 의한 대립 명세이다. Drescher(2009) 및 고성연(2010: 89-93)에 따라 후자, 즉 자질 위계에 의한 대립 명세 방식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질 위계에 의한 대립 명세 이론, 즉 대립 위계 이론(contrastive hierarchy theory)은 크게 두 가지 기본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음운론적 계산은 오직 대립적 자질에 대해서만 작용한다는 대립주의자의 가설(contrastivist hypothesis, Hall 2007)이고, 다른 하나는 대립 자질들 간의 위계를 결정짓는 연쇄 분할 알고리즘(successive division algorithm)이다. 먼저 대립 위계 이론은 대립주의자의 가설에 입각하여 어떤 자질이 대립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다음을 제시한다.

(10) 대립과 음운론적 활성(Drescher 2009: 74)

오직 대립적 자질만이 음운부에서 활성(active)이며, 체계 잉여적 자질은 비활성(inert)이다.

이에 따르면 음운부에서 ‘활성’인 자질은 대립적 자질로 간주할 수가 있게 된다. 이 가설은 그러나 어떤 자질이 대립적이기 위하여 음운론적으로 ‘활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즉, 음운론적으로 ‘활성’이면 대립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대립적 자질이라고 해서 반드시 ‘활성’일 필요는 없다. 이때 음운론적 ‘활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 음운론적 활성 부류(Mielke 2008: 13)

음소목록 내의 한 음소 무리들이 다른 음소들과는 구별되어 어떤 음운 과정을 겪거나 유발할 경우, 또는 정태적 분포제약을 보일 때 이를 음운론적 활성 부류라 한다.

즉, 한 음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잠재적 자질들 중에서 음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증을 가진 자질 명세만을 활성이라 보는 것이다(Drescher and Zhang 2005: 52). 예컨대, 언어 L에 /i/가 원순자음 아래에서

/u/로 변하는 원순모음화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원순성 자질이 음운부에서 활성화되며 따라서 대립적 자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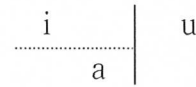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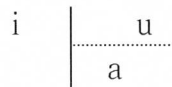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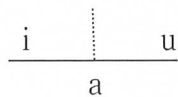
이렇게 대립적 자질들이 확인되면, 이들의 위계는 음소목록을 주어진 자질로 양분하는 연쇄 분할 알고리즘(이하 SDA)의 반복을 통해 결정된다.

- (12) 연쇄 분할 알고리즘(Successive Division Algorithm, Dresher 2009: 16)
- 모든 말소리가 하나의 구별되지 않는 음소의 변이음이라는 가정, 즉 무자질명세로부터 시작하라.
 - 만약 말소리 집합이 둘 이상의 대립하는 음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느 한 자질을 선택하여 그 자질이 허용하는 개수만큼의 하위집합으로 음소들을 구분하라.
 - 각 하위 집합에 대해, b의 단계를 반복하라. 연속적인 자질들을 차례로 적용하여 모든 집합에 오직 하나의 원소만 남을 때까지 음소목록을 집합으로 계속 분할하라.

그러나 음운론적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SDA에만 의존하여 언어 L의 모음체계를 분석하게 되면, 분석자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음의 자질로서 [high], [back], [labial]의 세 자질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여도, 이들 자질의 조합과 자질 간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대등한 모음체계가 6개나 나온다.

(13) 3모음 체계의 잠재적 대립 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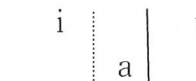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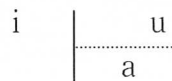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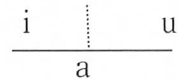
- a. [high] > [labial] b. [back] > [high] c. [labial] > [high]



- d. [high] > [back]

- e. [back] > [labial]

- f. [labial] > [back]



따라서 대립주의자의 가설과 SDA는 대립 위계 이론에서 상호 보완적인 위치에 있다. 대립주의자의 가설을 따라 음운론적 패턴에서 [high]와 [labial]의 활성화, 즉 대립성을 확인하였다면, (13a)와 (13c)에서 보듯이 이 두 자질만으로 모음 음소가 남김없이 구분이 되므로 남겨진 자질 [back]은 비활성 자질, 더 나아가 잉여자질로 간주된다. 이처럼 대립 위계 이론은 어떤 자질이 대립적인지 잉여적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대립 위계 이론은 또한 특정한 음소에 있어서 어떤 자질이 대립적인지, 잉여적인지를 보여준다. (13a)에서 /a/는 [high] 자질에 의해서 먼저 나머지 두 모음 음소들과 구분된다. 이렇게 [high] 자질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추가 자질 명세가 필요 없게 된다. 이 점은 SDA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는데, [-high]의 속성을 갖는 집합의 원소가 /a/밖에 없으므로 이 집합은 더 이상 추가적인 자질에 의해 하위 집합으로 나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음운체계 전체로 봤을 때에는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labial]가 모음 /a/의 자질 명세에서는 잉여적인 자질이 된다. 언어 L에서 /a/가 /i/와 마찬가지로 비원순 모음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i/와는 달리 원순모음화를 겪지 않는다면, 이는 /a/의 자질 명세에서 [labial]가 잉여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high]>[labial]라는 대립 위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대립 위계 이론은 또한 대립 위계의 차이에 의한 가변성(variability)을 허용함으로써, 언어의 통시적 변화와 공시적 변이를 대립 위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13a)와는 달리 (13c)는 동일한 음소 목록과 동일한 대립 자질로 이루어졌지만 반대의 대립 위계 [labial]>[high]를 갖는 모음체계를 나타낸다. 대립 자질들의 순서가 바뀌면 자질들의 영향권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다시 각 음소의 변이음 영역이라든지 음운론적 패턴 등에서 차이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13a)에서는 /a/를 제외한 /i/와 /u/ 사이의 [labial] 관련 교체 또는 중화 현상이 예상되는 반면, (13c)에서는 /u/를 제외한 /i/와 /a/ 사이의 [high] 자질에 의한 교체 또는 중화 현상이 예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립 위계 이론은 비슷한 음소 목록을 갖는 언어들이 왜 전혀 다른 음운 현상과 변화를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하는 것이다.

자질의 대립 위계는 그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남부 및 북부의 일부 방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어에서는 [low]>[labial]의 위계가 [labial]>[low]로 바뀌어 진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low] 자질의 대립이 중화를 일으켜 ‘·’가 ‘ㄱ’로 바뀌어지게 된다. 남부 방언은 다른 방언과 달리 순자음 아래 ‘·’를 갖는 일부 어휘에서 [labial]>[low] 위계를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순성이 강한 고모음 위치에서 [원순성] 대립이 확립된 다음, 그 대립이 중모음과 저모음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대립 위계의 변화를 일으킨 결과, 이제는 [low]자질이 최소 대립 위계가 되어 ‘ㄱ’로의 중화를 일으키게 된다.

중부 방언에서는 자질 위계 대립 [coronal]>[high]>[low]>[labial]을 그대로 유지한 관계로 [labial] 대립의 중화로 인하여 고모음에서는 ‘->ㅌ’의 원순모음화를 일으키고, 원순성이 약한 중모음과 저모음에서는 ‘ㄱ>ㄷ’ 및 ‘·>ㅌ’와 같은 비원순모음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ㅌ’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의 제2단계 변화로 알려진 것이다. ‘·>-’의 제1단계 변화는 설측 대립의 중화로 인해 발생한 모음변화이고 ‘·>ㅌ’의 제2단계 변화는 원순성([labial]) 대립의 중화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남부 방언은 중부 방언과 같이 [labial]의 위계 대립이 확립되기 이전에, 대립 위계의 가변성에 의해 [low]와 [labial]가 순서를 바꾸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모음에서의 [labial] 대립이 이루어져 ‘->ㅌ’와 같은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후, [labial] 대립이 체계적으로 확립되기 이전에 자질 위계의 변화가 생겨 [low]가 최소 대립 위계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남부 방언은 [low]의 대립 중화로 인해 ‘·>ㄱ’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서북 방언에서도 나타나 이들 방언은 중부 방언과 차이를 보인다. 전북 방언의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조규태 2005: 12)⁹⁾.

9) 조규태(2005)에 대한 비판은 최전승(200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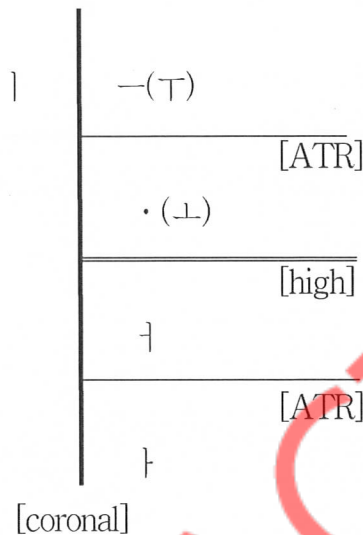
- (14) 모디(節) - 모디(부안, 장수, 임실, 순창)
 몰오다(乾) - 몰리다(임실), 몰루다(부안)
 모술(村) - 모실(고창, 정읍, 김제,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몰가디다(淸) - 몰가지다(부안)
 몰다(卷) - 몰다(임실), 몰:다(정읍, 부안, 진안, 장수, 순창, 남원)
 불가디다(明) - 불가지다(부안, 임실)
 뽐다(踏) - 뽐다(정읍, 부안, 임실, 순창)
 뽐퀴(蝙蝠) - 뽐퀴(부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썰다(吮) - 썰다(임실)
 프리(蠅) - 프리(정읍, 부안, 임실, 순창, 남원)
 폴(臂) - 폴(부안, 임실)
 풋(小豆) - 풋(부안, 임실, 순창)

이러한 방언형들은 [labial]>[low]와 같이 [low]가 최소 대립의 위치여서 중화를 경험하여 ‘·>ㄴ’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북 방언 내에서 이러한 ‘·>ㄴ’형이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는 ‘·>ㅌ’형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위계의 가변성에 따라 [labial]과 [low]가 지역에 따라 동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15세기 문헌에서 ‘·/ㅡ’는 순음성의 환경에서 ‘ㄴ/ㄷ’로 혼기되어 나타난다. 이 현상은 원순성 대립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음성적 차원의 원순성 동화가 적용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ATR] 대립 체계에서 [labial]은 비변별적이어서 자질 대립 위계에서 잉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변별자질 대립 위계는 [coronal]>[high]>[ATR]이어서 [ATR] 대립을 이루는 ‘·/ㅡ, ㄱ/가, ㄴ/ㄷ’는 중화를 경험하므로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혼기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ㄴ, ㅡ/ㄷ’의 혼기는 순음성 환경에서만 그리고 제한적으로 혼기되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원순성 자질의 대립이

[ATR]이 작용하는 모음체계에서 독자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음운론적인 모음체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세기부터 [ATR] 대립이 약화되어 소멸하면, 이에 따라 새로운 대립 위계가 형성된다. [ATR]의 중요한 속성으로 작용하던 [low] 자질이 새로 등장하고 [ATR] 자질 때문에 비변별적인 부차적 지위에 머물렀던 [labial]이 새로운 자질 대립 위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 새로운 대립 위계 [coronal]>[high]>[low]>[labial]가 나타나 모음체계는 2단계에서 3단계 높이로 변한다. 이때 최소 대립 위계의 [labial]이 중화를 경험하면 ‘┌>┐’ 원순모음화가 발생한다. 근대국어에서 발생한 순자음 아래의 ‘물>물(水), 불>불(火), 풀>풀(草)’ 등의 변화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어 전반에 걸쳐 예외 없이 발생하여 이들 어휘는 재구조화되었다. 고모음의 원순성은 저모음의 그것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 원순모음화가 먼저 발생한다. 비고모음 위치의 ‘┌’와 ‘┐’ 및 ‘┌’와 ‘┐’에서는 원순성이 약하므로 이들에서는 비원순모음화가 발생한다. 소위 ‘┌’의 2단계 변화 ‘┌>┐’는 사실상 [labial] 대립의 중화 결과 발생한 것이다. ‘┌’의 1단계 변화 ‘┌>┌’가 일어난 후의 음운론적 모음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ㅡ	ㅍ	[high]
	ㅑ	ㅓ	
	ㅕ	ㅗ	[low]
	[coronal]	[labial]	

비고모음에서 원순성 대립이 확립되기 전에 남부 및 북부 방언에서 자질 대립 위계의 변화가 일어나, [low]와 [labial]의 순위가 바뀌면 대립 위계는 [coronal]>[high]>[labial]>[low]가 된다. 그리하여 최소 대립 위계의 [low]가 중화를 경험하게 되면 ‘·>ㅓ’가 발생한다. 그 결과 남부 및 북부의 일부 방언에서 ‘·’는 ‘ㅕ’로 변하지 않고 ‘포리(蠅) - 포리, 풀(臂) - 풀, 꽃(小豆) - 꽃’처럼 ‘ㅓ’로 변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연(2010), 「중세국어 모음체계의 대립 위계와 그 변화」, 『언어학』 56, 한국언어학회, 87-118면.
- 곽충구(1980), 「18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50.
- 곽충구(1991), 「원순모음화 및 비원순모음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곽충구(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국어학총서 20, 국어학회.
- 김경아(2001), 「원순모음화와 원순성 동화」, 『인문논총』 8(서울여대), 51-63면.
- 김완진(1963/1998), 「국어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진단학회, 63-99면.
- 김완진(1975), 「전라도 방언 음운론의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하여」, 『어학』 2, 전북대 어학연구소.
- 김주원(1994), 「18세기 황해도 방언의 음운현상-보권염불문 흥률사판의 분석을 통하여-」, 『국어학』 24, 19-44면.
- 김진우(2009), 『언어-이론과 그 응용』, 탑출판사.
- 김 현(2007), 「비원순모음화와 ‘ㄱ’의 저설화」, 『진단학보』 103, 143-165면.
- 남광우(1973), 「원순모음화 현상에 관한 연구」, 『국어학』 2, 31-38면.
- 박중희(2000/2001), 「원순모음화 현상의 음운사적 연구」, 『국어음운사연구』, 보고서.
-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국어학총서 19, 국어학회.
- 백두현(1992), 「원순모음화 >ㄱ>형의 분포와 통시성」, 『국어학』 22, 341-370면.
- 석주연(1996), 「중세국어 원순성 동화 현상에 대한 일 고찰」, 『관악어문 연구』 21, 217-228면.
- 성희제(2001), 「원순모음화현상 연구」, 『우리말글』 23, 49-76면.
- 소강춘(1991), 「원순모음화 현상에 의한 모음체계의 통시성과 공시성」,

- 『국어국문학』 105, 1-29면.
- 송민(1994/1998), 「근대국어의 음운론적 인식」, 『음운Ⅱ』, 국어학강좌, 태학사.
- 신성철(2012), 「원순모음화 관련 연철·분철표기의 음운론적 인식 고찰」, 『언어학연구』 22, 61-88면.
- 오광근(1993), 「15세기 정음문헌에 나타나는 모음 이표기 연구」, 『성균어문연구』 29, 185-201면.
- 오광근·김주필(2013), 「후기 중세국어 원순모음화 현상의 양상과 특징」, 『반교어문연구』 34, 5-34면.
- 오종갑(1987), 「국어의 원순모음화 현상」, 『영남어문학』 14, 69-85면.
- 이기문(1972), 『국어음운사연구』, 한국문화연구소.
- 이기문(1977), 「제주도 방언의 ‘으’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국문학논총』 (이승녕선생 고회기념), 탑출판사.
- 이병근(1970/1981), 「경기지역어의 모음체계와 비원순모음화」,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국어학연구선서 8, 탑출판사.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총서 25, 국어학회.
- 전광현(1967), 「17세기 국어의 연구」, 『국어연구』 19, 국어연구회.
- 조규태(2005), 「남부 방언의 양순음 아래 모음 ‘고’에 대하여」, 『배달말』 37, 5-26면.
- 최전승(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도서출판 역락.
- 최전승(1999), 「원순모음화 현상의 내적 발달과 개별 방언 어휘적 특질」, 『국어문학』 34, 103-150면.
- 최전승(2005), 「국어사 연구에서 언어 사실과 그 해석의 논리: ‘으’의 경우」, 『배달말』 37, 99-125면.
- 한영균(1997), 「모음의 변화」, 『국어사연구』, 국어사연구회, 태학사.
- 허 용(2010), 「음성적 유표성 위계와 보편적 모음과의 상관 관계 연구」, 『이중언어학』 42, 307-330면.

- Dresher, B. E. (2008), The contrastive hierarchy in phonology, in P. Avery, B. E. Dresher, and K. Rice (eds.) Contrast in phonology: theory, perception, acquisi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11-33.
- Dresher, B. E. and X. Zhang(2005), Contrast and phonological activity in Manchu vowel systems,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50, 45-82.
- Dresher, B. E. (2009), The contrastive hierarchy in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ling, John H. (2005), There are no back vowels: The laryngeal articulator model, CJL/RCL 50, 13-44.
- Hall, D. C. (2007), The role and representation of contrast in phonological theor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Halle, M. & K. N. Stevens(1969), On the feature 'Advanced Tongue Root', Quarterly Progress Report No. 94, Research Laboratory of Electronics, M.I.T.
- Jakobson R., C. Gunnar M. Fant and Halle M.(1951), Preliminaries to speech analysis-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their correlates, The M.I.T. Press.
- Mielke, J. (2008), The emergence of distinctive fea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s】

The Change of Feature Contrastive Hierarchy and Labialization Education

Lee Hee-doo

In this paper the Middle Korean vowel system was analyzed as an [ATR]-based on a two-level vowel system with the feature hierarchy [coronal]>[high]>[ATR], whereas the Modern Korean vowel system as a [labial]-based on a three-level vowel system with a new feature hierarchy [corona]>[high]>[low]>[labial]. In the former vowel system, [labial] was represented as a redundant feature owing to the characteristic of this vowel system. With the only environment of an adjacent labial, a vowel /·/, /—/ was exchanged to /ㅏ/, /ㅓ/ synchronically on the non-distinctive phonetic level by assimilation.

In the late 16th century, [ATR]-based on a two level vowel system was disrupted by the neutralization of ‘·/—’. This appearance of the new feature contrast hierarchy occurred in the different phonological changes. When the contrast hierarchy was [coronal]>[high]>[low]>[labial], the labialization of ‘—>ㅓ’ happened through the neutralization of the minimal contrast [labial]. However, If this contrast hierarchy were changed to [coronal]>[high]>[labial]>[low], the labialization ‘·>ㅏ’ happened through the neutralization of the [low] instead of [labial].

Key words: labialization of ‘->ɽ/·>ɽ’, [ATR]-based two level vowel system, [labial]-based three level vowel system, contrast hierarchy.

RETRACTED

이 논문은 2016년 6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7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7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